

한국과 중국의 수천년 교류를 좇아

김한규 지음 《한중 관계사 (I·II)》

김구진 ·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중관계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학계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편이었다. 과거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사에서도 한중관계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한국사에서는 사대와 지주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문제 때문에, 그 사이에 한중관계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다. 오히려 동양사에서 한중관계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일찍이 전해중 교수(서강대)를 비롯한 몇 학자의 선구적인 연구업적이 있고, 또 그 사이에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상당히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잇따라 나왔다.

이제 우리 학계에서 한중관계사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한 형편이었는데, 김한규 교수가 대우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중관계사(I·II)》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근대·현대까지 수천년간의 한중관계사를 종합해 집대성한 것이므로 우리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진일보한 성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하해 마지않는다.

한국·중국 그리고 요동을 무대로

이 책에서 저자는 동아시아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중 관계사의 무대로 한국·중국과 제3의 존재, 즉 요동을 설정했다. 한중관계사의 시대를 전체적으로 3시기로 구분해 제1기는 '요동이 한국과 통합되어 미분화된 시기'로 잡아, 고조선·한사군과 고구려·발해의 한중관계사를 다뤘고, 제2기는 '요동이 한국과 분리되어 중국과 통합되어 간 시기'로 잡아, 요·금·원과 명·청의 한중관계사를 다뤘다. 또 제3기는 '요동과 중국이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 통합된 시기'로 잡아, 일제시대의 한중관계와 오늘날의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뤘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요동의 역사로 다루어, 요동이 한국과 통합돼 아직 분화되지 않은 시기에 설정함으로써, 고구려·발해가 중국사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한국사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생각된다. 한국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요동, 즉 만주의 역사로 다룬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

중국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된 것을

구명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관심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문화가

중국에 미친 영향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한중관계사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 한국문화 가운데

특수한 문화는 중국이나 북방 또는

남방일본에 전파된 사실을

더욱 많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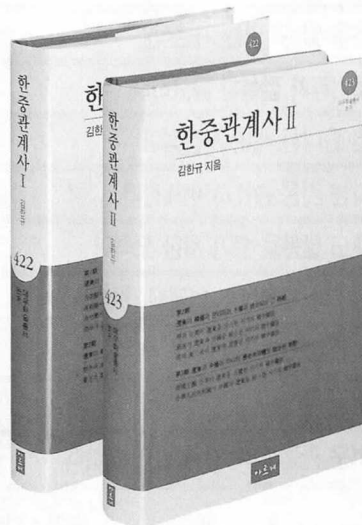
저자는 한중관계사를 정치외교 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 두 방면으로 나누어 시대별로 고찰하고 있다. 종래의 학계 연구는 정치외교 관계에 치우쳤으나, 근래의 연구는 무역과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 방면의 연구성과가 많다. 저자는 정치외교 관계와 경제문화 교류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한국에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한단계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어 고대에는 중국의 한자와 유학이 한국에 들어온 과정을 자세히 구명했고, 고려 때는 중국의 인쇄술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금속활자가 발명되는 과정, 조선시대에는 주자학과 고증학, 즉 북학의 조선 전래과정을 자세히 논증했다. 이처럼 중국의 사상과 학문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하려고 노력한 점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처럼 방대한 대저를 집필하기 위해 저자가 수년 동안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생각하면 찬사를 거듭 보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으로 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세·근대시기 연구 더욱 보충되길

첫째, 이 책의 I·II를 보면 고대 부분의 연구가 자세한 반면, 중세·근대에 대한 연구가 고대만큼 상세하지 못한 감이 있다. 저자가 원래 고대사를 전공해 중세·근대의 부분을 이만큼 정리한 것도 훌륭한 업적이라고



칭송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기 부분의 연구가 더욱 보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둘째, 한중관계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사대·교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한국사의 사대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는 여러 곳에서 시대별로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대와 교린에 대해 1장을 따로 설정해, 사대주의 이론의 체계화를 좀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면 한국사가 갖는 콤플렉스(?)를 풀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이 책에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시대별로 지도를 부록으로 붙인 것처럼,

본문의 교역 관계 등을 서술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통계표나 도표로 제시해 독자로 하여금 한눈에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이 점은 전적으로 저자의 자의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자는 최근까지 연구성과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부록으로 붙였다.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저서는 물론이고,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된 연구성과까지 총망라해 한중 관계사를 연구하려는 누구에게나 필독의 저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을 빌려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한국 학계에 소개하고 있지만, 역으로 한국학계의 최근 연구성과도 중국과 일본 등지에 소개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파된다. 그러므로 중국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된 것을 구명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관심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한국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도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특수한 문화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사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면, 한국문화 가운데 특수한 문화는, 중국이나 북방, 또는 남방(일본)에 전파된 사실을 더욱 많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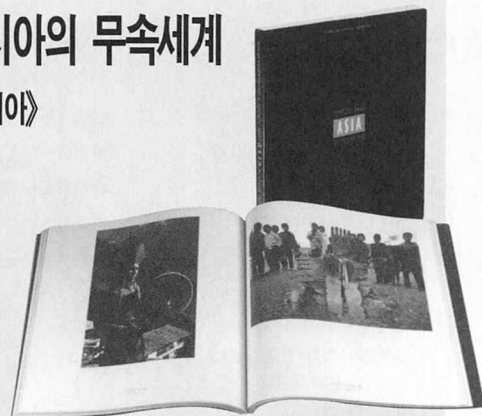
아르케/A5신/1222면/ I권 28,000원 II권 33,000원

원시의 생명력 담긴 아시아의 무속세계

김수남 사진집 《살아있는 신화 아시아》

‘살아 있는 신화 아시아 : 김수남 사진집’이 지난달 6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연세대 창립 114주년 기념 연세대박물관 특별기획전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의 도록집인 이 사진집은 한국 무속사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수남의 사진세계가 동남아시아로 시야를 넓힌 성과물들이다. 서양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사머니즘의 역동적 표정을 담아냈다.

풍요와 인정을 비는 제주도의 신과세당궁, 바다에서의 인전을 기원하는 일본 오키나와의 해신제, 작두를 타며 액을 쫓는 중국 운남성의



곳 희나신 등 사진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야생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

연세대박물관/155면/194면/비매품